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

‘몽골 최우수교육자 훈장’ 수상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를 지낸 고형일(54)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최근 몽골정부로부터 최우수교육자 훈장을 수상했다. 한국인으로 몽골에서 ‘최우수교육자 훈장’을 받은 것은 고 원장이 처음이다. 고 원장은 지난 1994년부터 14년 동안 한국과 몽골 양국간 교육분야 공동연구 및 정책연구, 교류협력 증진과 발전방안 수립 등을 통해 몽골의 교육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지난 8월 말 몽골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독일 등 23개국 31명의 석학들과 아시아교육혁신센터 결성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교육협력을 위한 2007 서울선언’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8일 개막 ‘2007 인문주간’ 광주 행사 총괄 전남대이강서 교수

“세상 밖으로 나온 인문학, 문화수도 동력됐으면”

“인문학의 가능성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광주 시민들이 직접 느껴보면 합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은 전국 14개 대학 및 단체가 광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익산 등 8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2007 인문주간’(hweek.krf.or.kr)이 8일 본격적으로

13일까지 11개 행사 진행

막을 올렸다. 광주 행사를 총괄하는 이강서(49·전남대 철학과 교수) 기획위원장을 이날 ‘금서(禁書)’전이 열리는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만났다. “광주가 이번 행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서울대에서 열렸고, 폐막식이 12일 전남대에서 열리는 것만 봐도 그렇죠. 내년에는 전남대에서 개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광주가 인문학에서 독자적인 것은 ‘인문 정신’이 살아있다는 상징성 때문이다. 올해 행사의 경우 광주는 타 시·도의 대학이나 단체들보

다 많은 11개의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전체적인 행사의 주제는 ‘열림과 소통’이고 광주 행사의 주제는 ‘따로 또 함께’다. 이 위원장은 “대학 내에서만 효용을 갖던 인문학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이 이번 ‘인문주간’ 행사의 목적”이라며 “단순히 강연회나 토론회에서 그치지 않고 전시나 공연 프로그램을 넣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소도 전남대 캠퍼스를 포함해, 전남대 정문과 옛 전남도청으로 확장시켜 시민들의 접근을 쉽게 했다. 각종 강연이나 토론회는 전남대 내 강의실 등에서 열리지만, 전남대 정문 청년길에서는 ‘인문학 시민 프로젝트’ 전시가 진행되고 옛 전남도청에서는 ‘금서전’, ‘호남의 100대 문화원형 전시’, ‘김삿갓과 오늘의 만남’ 등이 준비돼 있다. “특히 올해는 ‘인문주간’ 동안 광주에서 제8회 전국체전과 총장로 축제도 함께 열리는데, 주최 측의 입장에서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 크다고 봅니다. 외부인들이 ‘인문주간’ 행사를

보고 광주의 인문학 토대가 탄탄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인문학의 위기를 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인문학은 어떤 의미일까. 이 위원장은 “흔히 학문의 경제·산업적 가치를 따지는데 이 논의에서도 인문학의 가능성은 무한

광주 행사 주제는 ‘따로 또 함께’

하다”며 “스필버그 영화 한 편이 자동차 몇 만대 생산 효과를 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바로 인문학이라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는 광주와 시민들에게 기회입니다. 문화의 동력은 인문학에서 나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행사를 통해 광주의 인문학적 수준을 널리 알리고 그 역량이 과시됐으면 합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위직탐기자 jrwi@kwangju.co.kr



‘화려한 휴가’ 명품 조연 박철민 ‘자신감을...’ 호남대 특강

영화 ‘화려한 휴가’의 박철민(40)씨가 9일 호남대 관산캠퍼스 4호관 소강당에서 ‘자신감을 갖는 인간미’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광주 토박이인 박씨는 지난 1988년 연극계에 데뷔해 연극과 노래극 등 50여편 이상의 작품에 출연, ‘명품 조연’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배우다. 영화 ‘목포는 항구다’, ‘불멸의 이순신’ 등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면서 진한 인상을 남겼고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는 감칠맛 나는 연기로 웃음과 감동을 주면서 인기를 얻었다. 중앙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그는 이날 특강에서 “자신감 없는 노력은 무의미하다”면서 “학생들의 경우 젊음이 담보인 만큼 수단이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얻은 자신감을 갖고 노력한다면 자신이 진정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배울 것”이라고 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KIA타이거즈 신임 단장에 김조호씨

프로야구 KIA타이거즈는 10일자로 김조호(49·사진) 현대기아차 기획실 이사대우를 신임단장에, 공석 중인 부단장에 이영철(45) 기아자동차 부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9일 밝혔다. 김 신임단장은 인창고와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1984년 기아자동차에 입사한 뒤 마케팅, 홍보, 기획 업무를 맡아왔다. 이 신임부단장은 2001년부터 4년 동안 관리팀장 및 마케팅팀장을 역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주 여성들의 ‘한글 강사’ 김재연씨



매주 금요일 해남군 여성회관에는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주 여성들의 한글 강사인 김재연(49·해남군 마산중앙교회)씨가 외국인 이주 여성들에게 한글 교육에 나서기 때문이다.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한글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씨는 몸짓은 물론 그림까지 동원해 한글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 김씨는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나이에 국적도 다르고 한국어 수준도 제각각이어서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수업을 해나갈 때 마다 실력이 날아가 향수병에 걸리는 학생들을 보며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씨가 한글교육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은 10여년 전으로 남평이 서울에서 목사 시무를 할 때 교회 근처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지도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씨는 한글을 배우기 위해 매주 여성들관 한글교실을 찾는 이주 여성들이 아이와 남편, 시댁식구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게 소원이라는 이주 여성들의 꿈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의 신문 읽기 스타’ 소설가 은희경씨 선정



소설가 은희경(사진)씨가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가 선정한 ‘올해의 신문 읽기 스타’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의 신문 읽기 스타’는 협회가 청소년들의 읽기 문화 증진을 위해 신문읽기의 모범이 되는 사회 유명인사를 선정, 시상하는 제도로 지난해에는 개그맨 김재동이 수상했다. 대학 시절부터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는 은 씨는 “신문은 어떤 기사든 논리 형식을 갖추고 있어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며 “특히 좋아하는 필자의 칼럼을 읽는 것이 재미를 줄 뿐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주장을 갖게 하는 필수적인 코스”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

되는 ‘2007 전국 NIE 대회’에서 열리는 ‘나는 신문을 이렇게 읽는다’를 주제로 특별강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

고창현 광·전발전협의회장 16일 日 와세다대에서 강연

고창현 광·전발전협의회장은 오는 16일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열리는 125주년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 ‘와세다 대학에의 법학과 기대’라는 제목으로 강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



서정치과, 체전 재중국 동포선수단 초청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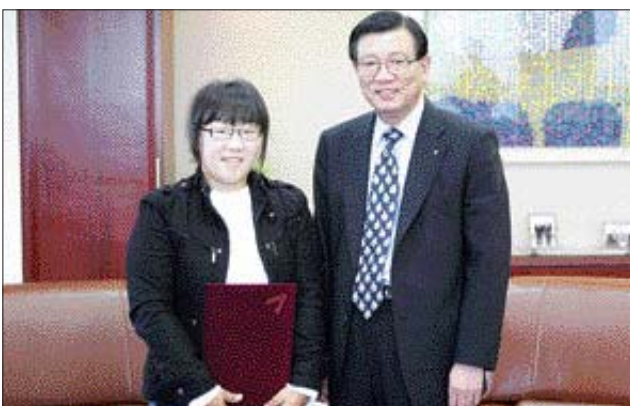
서정치과대표원장 김재곤은 9일 제88회 전국체전 참가를 위해 광주를 찾은 재중국 동포선수단(단장 이시현) 100여명을 초청, 격려하고 체전기간동안 재중국 동포선수단을 대상으로 치료와 무료 진료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보혜덕천장학회, 2007년도 하반기 장학금 전달



보혜덕천장학회(이사장 임건우)는 9일 보혜양조 장성공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학생 105명과 대학생 2명 등 107명에게 ‘2007년도 하반기 장학금’ 5천400만 원을 전달했다.

박삼구 금호회장, 신지에 선수에 무료항공권



박삼구(오른쪽)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8일 서울 금호아시아나를 사육에서 여자프로골프 신지에 선수(19)와 부친 신재섭(46)씨에게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전 노선 비즈니스석을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무료항공권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광고6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일시: 2007년 10월 13일 오후 5시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 3홀(4층)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 ▲김삼선씨 막내 성원군 김동현(전 전남도청)씨 장녀 춘희양=13일(토) 오전 11시40분 삼성웨딩홀 3층 다이아몬드홀.
▲김종재(전 전남대 대학원장)씨 장남 태형군 권용문씨 장녀 은경양=13일(토) 오후 3시 서울시 청담동 리베라호텔 3층 몽블랑홀.
▲나문중(전 주) 건설설비 대표이사)·김혜순(광주 서초동 교사)씨 장남 건웅(광주 광산구청)차 재화(광주일보 담당주재기자)·박선례(광일숯불갈비)씨 장녀 선화(광주 윤리초교 교사)양=13일(토) 오전 11시20분 꿈의 궁전 웨딩홀 1층 에메랄드홀.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아동 일시 보호원하는 경우. 국내 입양 상담. 미혼

- 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1095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동창·동문회

- ▲복성중 제 11회 동창회(회장 이석영) 월례회=11일(목) 오후 6시30분 보성북차관우. 223-8589
▲복성중 제 12회 동창회(회장 서윤호) 월례회=12일(금) 오후 6시30분 법암리부부. 512-7181
▲복성중 제 15회 동창회(회장 정본진) 월례회=12일(금) 오후 6시30분 합회식당. 225-3233
▲송원고 총동문회 제 31차 정기총회 및 한마음축제는 14일(일) 오전 8시30분 송원대 운동장. 011-212-2900
▲재광 벌남 15회 동창회(회장 김군재) 모임=15일(월) 오후 6시 일송정. 525-9977
▲광주대 총동창회(회장 김문세) 임시총회 및 창립 20주년 기념행사=19일(금) 오후 6시30분 유토과아

웨딩홀 4층 대연회장. 369-6882~3

종친회

▲영광김씨 재광종친회(회장 인규) 월례회=11일(목) 오후 7시 백운산회관. 019-9773-7128

향우회

▲재광 장흥군 향우회(회장 김후식) 월례회=12일(금) 오후 6시30분 그랜드호텔 11층. 011-611-6208

모임

▲동신대 건축학과 20주년 기념행사=13일(토) 오후 6시 하당크 관광호텔.

모집

▲유급지원병(전문병) 모집=중졸 이상 학력으로 해당 특기 자격·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모집 인원 1천명. 의무복무기간은 일반병과

동일, 연장복무기간은 하사로 영내 거주하며 이 기간중 월 20만원·지원장려수당 월 60만원 지급. 문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팀 230-4246~9

▲황실 심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쿠션·액자·지갑·열쇠고리·휴대전화 줄 제작 등 무료 교육. 문의 512-4000, 528-8500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 북구 지역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북구지역 결혼 이주여성 30명. 한글·컴퓨터·집단 상담·미술 활동·명절 행사·가족 나들이 등 프로그램 무료로 진행. 문의 267-3700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 모집=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512-5788, 262-1542

▲장애인 차량봉사=장애인 차량 봉사 동행 서비스, 장거리 광주일원(담양·나주·화순) 등 2~3일전 예약시 가능. 0505-206-0106

부음

▲윤정현(전 해남 황산 동초교 교장)씨 별세 연수·영배·양수·춘화·태일·보일(금음강독원 팀장)·혜주씨 부친상 부영규·박상률씨 부부상=발인 11일(수) 봉선동 천주교회.

고졸격! 저비용! 대형주차장!
정성껏 섬겼습니다
-대표구제원-
금호장례식장
T.(062)227-4000 (24시간예약)
사전예약 하신 분께 사용료의 2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님 모두 특별분양
전화 (062) 521-1100